



여수 송기홍



영남 서화권



영남 조대호



완도 김강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회순 박순철

광양시, 어린이 통학차량 ‘갑힘 사고’ 선제적 대응

‘쑥쑥이 평동-카 사업’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황재우)이 어린이 통학차량 갑힘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광양시는 지난 16일 시청 상형실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갑힘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안전비상관제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따른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황재우 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 신윤상 전국민안전공동체운동본부 대표, 임경준(주)KT 전남본부법인 단장,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4개 기관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갑힘 사고 예방과 어린이들의 안전습관 형성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양시와 어린이

보육재단은 ‘쑥쑥이 평동 카서비스’ 차량안전비상관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과 관리를 맡게 된다.

공동체운동본부에서는 ‘쑥쑥이 평동 카 서비스’ 제공과 운영, (주)KT에서는 운영을 위한 무선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차량안전비상관제단말기는 안전공동체와 (주)KT가 무료로 공동지원을 하게 된다.

‘쑥쑥이 평동-카 사업’은 차량 내 갑힘 사고 대처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음원 재생과 갑힘사고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구조요청 신호가 운전자와 원장, 학부모 등에게 휴대폰 문자 전달되며, 기관 PC로도 알려주는 IoT 차량 비상관제서비스가 구축된다. 또 보호자에게 차량 도착예정

간을 알려주는 IoT통학차량 위치정보관제서비스도 갖춰진다.

어린이보육재단에서는 어린이 12인승 이상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144개소와 사립유치원 12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황재우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되고 어린이들의 안전습관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앞으로 시와 어린이보육재단이 협력해 전국 최고의 양육환경을 갖춰 나가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광양항 배후단지 中 커피제조기업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방희석, 이하 공사)는 중국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커피 공급업체인 운남하이메이커피(주)와 최근 배후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운남하이메이커피(주)는 중국 운남성에 위치한 커피 제조·수출업체로, 커피 재배는 물론 영업,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

는 연 매출액 2,000억원 수준의 건설한 기업이다.

이번 성과는 CEO가 직접 중국 소재의 입주 의향기업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로,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의 사업범위 확장 및 안정적인 물량 창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희석 사장은 “국내 항만에서 글로벌 커피 관련기업과 실질적인 투자유치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

번이 첫 사례”라며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Food-Zone 내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한다면 동북아시아 커피 산업의 허브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CEO 투자유치활동은 14일부터 20일까지 전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15일부터 16일까지는 국내 민간업체인 아이비인베스트먼트(대표 이종식) 등의 협조로 중국 운남성 지역의 커피업체를 방문하였으며, 17일부터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협업을 통해 중국 안휘성 지역 월드체인 및 농식품 관련 12개 업체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방희석 사장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내 신규 투자유치를 통해 광양항 물동량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증대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 주민 주도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1개 마을 10억원 내외 지원

순천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주민주도의 안심마을’을 오는 2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 주도의 사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안전을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안전도 및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

를 실시한다. 공모 신청은 20인 이상의 마을 주민공동체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 절차는 1차 순천시 서면심사를 통해 2개소를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며 2차 행정안전부 전문가의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최종 대상지 1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공모분야는 생활안전, 범죄예방,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사업 발굴 및 안전문화 운동 추진이며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안전을 생각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예방접종·손씻기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하세요”

순천시보건소, 개인위생 준수 적극 홍보

순천시보건소는 지난 12월 1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인플루엔자 외래 환자가 현재 72.1명으로 12월 말(53.6명)에 비해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홍보에 나섰다.

임신부, 영유아, 65세 이상, 폐·심장 질환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감염병 기본적인 위생 수칙인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와, 공공장소에서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실천과 인플루엔자 의심 증

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플루엔자 유행에 취약한 보육 시설과 요양 시설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는 예방 및 환자 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영유아 및 학생은 인플루엔자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취약 계층 등 총 55,200명에게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는데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대상자인 기초수급가구,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을 관내 주민센터 및 보육 시설, 학교 등 집단시설에 홍보하고 개인위생 실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영유아 및 어린이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보육시설 등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화순군, 색다른 군민과의 대화 ‘눈길’

구충곤 군수가 대화 주도·좌석 ‘□’ 형태 배치



자가 개입하면서 대화 분위기가 경직될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구충곤 군수가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생동감이 넘친 데다 군민은 그만큼 편안

한 분위기에서 군수와 격의 없이 대화를 하게 된 것이다.

군민의 고충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구충곤 군수가 직접 질문자를 선택해 발언권을 주는 등 대화 전 과정을 주도했다.

동면 면민과의 대화에선 면민들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서성 저수지 경관도로 가드레일 개선 및 돌레길 조성, 면을 통한 상향식 건의사항 접수 등을 건의했다.

군은 군민의 안전과 불거리 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건의사항은 면과 공유해 군민이 불편하지 않

도록 할 계획이다.

남면 면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교량 보수, 마을 안길 포장, 마을 진입로 확장, 농수로 준설 등에 대해 해당 실과소에서 현장을 방문해 검토하기로 했다.

구충곤 군수는 “시종일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대화에 함께해주신 데 대해 기쁘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 “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